

# 김학범호 다시 뭉친다...내달 2일까지 강릉·서귀포서 담금질

## 제주 서귀포서 프로 구단과 3차례 연습경기

### 국내파로 구성된 소집 송민규 3회 연속 발탁

도쿄올림픽에서 9년 만에 메달 사냥에 나서는 김학범호가 다시 뭉친다. 김학범 감독이 이끄는 올림픽대표팀이 11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강원도 강릉과 제주도 서귀포에서 1차 국내 훈련을 진행한다. 지난해 11월 이집트에서 개최된 23세 이하(U-23) 3개국 친선대회에서 이집트(0-0무), 브라질(1-3패)을 상대로 1승1무를 기록한 이후 2개월여만의 소집 훈련이다. 김학범호는 11일 강릉에서 소집해 훈련한 뒤 19일 서귀포 이동한다. 서귀포에선 성남FC(26일), 수원FC(30

일), 대전하나시티즌(2월2일)과 연습 경기를 치를 계획이다. 축구협회는 소집 기간 선수단 안정을 위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 하겠다고 했다. 국내파 위주로 구성된 이번 소집에는 지난해 9월 파울루 벤투 감독의 남자 국가대표팀과 스페셜매치에서 첫 승선한 송민규(포항)가 3회 연속 이름을 올린 가운데 이동률(제주), 박태준(성남), 최준(울산) 등이 처음으로 발탁됐다. 일본에서 뛰는 장민규(제프 유나이

티드), 안준수(세레소사카) 등도 포함됐다. 공격전에서 눈에 띄는 선수는 1년여 만에 김학범호에 호출된 공격수 전세진(김천)이다. 상무에 입단한 전세진은 “늦게 왔다. 그리고 대표팀 동료들이 아주 그리웠다. 다시 부름을 받게 돼 정말 영광”이라며 “2002년이 재 활의 해였다면 2021년은 도약의 해라고 생각한다”라며 각오를 보였다. 김 감독은 국제축구연맹(FIFA) 클럽월드컵을 앞둔 프로축구 울산 현대 소속 선수들과 상무 입대를 준비 중인 조규성(전북) 등은 제외했다. 또 2019년 이후 오랜만에 김학범호에 승선했던 수비수 이지솔(대전)은 골반쪽 관절에 경미한 염증으로 빠른 회복을 위해 이번 소집에서 제외됐다. 대체 선수로는 이정문(대전)이 발탁

됐다. 코치진에도 변화가 있었다. K리그2 대전하나시티즌 지휘봉을 잡은 이민성 코치를 대신해 이창현 대한축구협회 전임 지도자가 합류했다. 이창현 전임지도자는 인천 유나이티드, 제주 유나이티드, 부산 아이파크 등에서 프로 생활을 했으며, 남자 20세 이하(U-20), U-23 대표팀 경험도 있다. 한편 김학범호는 지난해 1월 태국 방콕에서 치른 2020 아시아축구연맹(AFC) U-23 챔피언십에서 우승해 9회 연속 올림픽 본선 출전권을 따냈다. 올림픽 아시아지역 최종예선을 겸해 열린 U-23 챔피언십에선 3위까지 도약할 티켓을 쥔, 한국은 1988년 서울 대회부터 9회 연속 올림픽 본선



무대를 밟게 됐다. 한국 축구의 올림픽 본선은 1948년 런던 대회, 1964년 도쿄 대회를 포함 해 통산 11번째다. 서선욱 기자

## 목포시, 유달경기장 판다 “넓고 체육기능도 상실”

### 시의회 의결 등 거쳐 상반기 완료 예정



목포시가 건축 30여년이 지나면서 노후화되고, 공인규격에 미달해 기능을 상실한 유달경기장 부지 등을 매각한다. 목포시는 18일 개최하는 시의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거쳐 유달경기장 부지와 건물, 시설물의 일괄 매각을 추진할 예정이다. 매각되는 토지는 유달경기장 전체 부지 6만4000㎡ 중 4만3180㎡와 건

물, 시설물 4건 등이다. 감정가액은 280여억원으로, 예정가격 이상 최고금액을 낙찰자로 선정하는 온비드 전자입찰로 진행된다. 시는 2월까지 매각계획 및 방안 검토, 3월까지 매각가격과 일정 확정, 6월 공유재산 매각 입찰공고 등을 거쳐 상반기 매각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목포유달경기장은 1987년 준공돼 노후되고, 공인규격에 맞지 않아 전국

규모 이상의 대회를 치르기에 어려운 상황이다. 또 2023년으로 1년 연기된 제103회 전국체전을 유치한 목포시가 대양동 국제축구센터 뒤편에 목포종합경기장 건설을 추진하면서 유달경기장 부지는 매각이 추진됐다. 시는 앞서 자연녹지인 유달경기장 부지를 아파트 건축 등이 가능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했다. 다만, 전체 부지 중 용도변경이 이뤄지지 않은 나머지 부지는 입찰전의 녹지공간과 연계해 웰빙공원 및 보행로 등을 갖춘 체육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목포시 관계자는 “유달경기장 매각 대금은 종합경기장 건설비용 등으로 충당될 것”이라며 “유달경기장 부지가 아파트 만이 아닌 주민들의 쉼터로서의 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목포=박정수 기자

## 임성재, 새해 첫 대회 톱5 진입

### 센터리 토너먼트 오브 챔피언스 공동 5위



임성재(23·CJ대한통운)가 새해 첫 대회에서 톱5 진입에 성공했다. 임성재는 11일(한국시간) 미국 하와이주 카팔루아 리조트 플래너이션 코스(파73)에서 열린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센터리 토너먼트 오브 챔피언스(총상금 670만 달러) 4라운드에서 4언더파 69타를 쳤다. 최종합계 21언더파 271타를 적어낸 임성재는 젠더 슈펠러(미국)와 공동 5위로 대회를 마쳤다. 센터리 토너먼트 오브 챔피언스는 정상급 선수 42명이 출전하는 왕중왕전 성격의 대회다. 전년도 우승자만 출전하는 것이 전례이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지난 시즌 대회가 축소돼 투어 챔피언십에 진출했던 페테르스 포인트 상위 30명 중 16명이 추가로 가세했다. 지난해 혼다 클래식 우승자 자격으로 대회에 임한 임성재는 역전 우승에

실패했지만 쟁쟁한 선수들을 뒤로 하고 톱5에 이름을 올리며 2021년을 산뜻하게 시작했다. 최종 라운드 초반은 조금 아쉬웠다. 1번홀 버디로 기분 좋게 문을 열었지만 2번과 3번홀 연속 보기로 주춤했다. 5번홀에서 버디 퍼트를 홀컵에 넣은 임성재는 전반 9개홀을 이븐파로 마쳤다. 임성재는 13번홀 버디로 분위기를 바꿨다. 특히 경기 마지막에 집중력이 빛났다. 14번과 15번홀에서 버디를 놓쳤지만 16번홀부터 18번홀까지 3연속 버디에 성공, 순위를 끌어올렸다. 끝까지 치열했던 트로피 경쟁은 해리스 잉글리시(미국)의 승리로 막을 내렸다. 최종합계 25언더파 267타로 호아킨 니만(칠레)과 72개홀에서 승부를 가리지 못한 잉글리시는 연장 접전 끝에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2013년 11월 OHL 클래식 이후 7년 2개월 만에 투어 통산 3승째를 신고했다. 우승 상금은 134만 달러(약 14억 7000만원)다. 니만은 4라운드에서만 9타를 줄이며 투어 통산 2승째를 목전에 뒀으나 잉글리시의 기세를 꺾기엔 역부족이었다. 세계랭킹 1위 저스틴 토마스가 두 선수에게 1타 뒤진 단독 3위에 자리했고, 라이언 파머(이상 미국)가 최종합계 23언더파 269타로 4위를 차지했다. 목포=김정수 기자



## 한나래, 호주오픈 예선 1회전 ‘통과’

한나래(29·인천시청·204위)가 호주오픈 테니스대회 여자 단식 예선 1회전을 통과했다. 한나래는 10일(한국시간)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열린 호주오픈 테니스대회 여자 단식 예선 1회전에서 올리아 그라버(25·오스트리아·227위)에 2-1(3-6 6-3 6-1)로 역전승을 거뒀다. 1세트를 내주며 불안하게 출발한 한나래는 2세트에서 상대의 첫 서브게임을 브레이크하며 분위기를 반전시키는데 성공했다. 그는 세트 초반 접은 리드를 잘 지켜 2세트를 가져갔다. 승부를 원점으로 되돌린 한나래는 3세트에서도 상대의 서브게임을 따내며 기세를 살렸고, 게임스코어 2-1로 앞선 상황에서 내리 4게임을 가져와 승리를 확정지었다. 2년 연속 호주오픈 단식 본선 진출에 도전하는 한나래는 2회전에서 조베타나 피롱코바(34·불가리아·136위)를 상대한다. 예선에서 3연승해야 오는 2월8일 호주 멜버른에서 개막하는 호주오픈 본선 무대를 밟을 수 있다. 목포=김정수 기자

## “김광현, ERA 유지 힘들 것...제구가 관건” 美매체



메이저리그(MLB)에서 두 번째 시즌을 앞둔 김광현(33·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이 2021시즌 1점대 평균자책점을 기록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왔다. 미국 SB네이션은 11일(한국시간) “김광현은 2020시즌 어떻게 좋은 성적을 냈을까”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김광현을 분석했다. 2019시즌을 마치고 포스팅 시스템을 통해 메이저리그 진출에 도전한 김광현 2년 보장 금액 800만달러에 세인트루이스와 계약했다. 김광현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개막이 연기되고, 마무리 투수로 시즌을 시작했다가 선발로 보직을 옮기는 등 우여곡절 속에서도 성공적인 시즌을 보냈다. 김광현은 “김광현은 볼넷을 많이 주지 않고, 강한 타구를 허용하

지 않아 성공을 거둘 수 있었다”며 “김광현의 낮은 삼진 비율은 올라 가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구속과 공의 움직임에 봤을 때 안타를 허용하기 쉽다. 김광현이 홈플레이트 중심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제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2020시즌 김광현이 스트라이크 존을 벗어나는 공을 던진 비율이 52%라고 소개한 SB네이션은 “김광현의 투구는 대부분 스트라이크존 하단에 분포돼 있다. 스트라이크존 한복판으로 공을 던진 비율은 27%에 불과했다”며 “헛스윙 유도 비율이 낮은데도 김광현이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이유다. 볼넷을 주지 않고 스트라이크존 주변에 공을 던져서 강한 타구를 많이 허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SB네이션은 “김광현은 자신의 강점을 잘 이용했다. 김광현이 계속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강력한 제구를 유지해야 한다. 실투는 강한 타구로 연결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김광현이 구위가 뛰어난 투수보다 위험성이 있는 것은 명확하다. 하지만 김광현의 연봉은 400만달러로, 현재 모습만으로 연봉보다 뛰어난 활약을 펼치고 있다”고 평가했다. 뉴스

## 이강인 선발로 73분 활약...발렌시아, 9경기 만에 승리

### 이강인 정규리그 8경기 만에 선발 출전

### 평점 6.3점...선발 11명 중 최하점



이강인(20)이 선발로 출전한 스페인 프로축구 프리메라리가(라리가) 발렌시아가 정규리그에서 9경기 만에 승리를 거뒀다. 발렌시아는 11일(한국시간) 스페인 바야돌리드의 에스타디오 호세 소르리아에서 치러진 레알 바야돌리드와

의 2020-2021시즌 라리가 18라운드 원정에서 1-0으로 승리했다. 지난해 11월9일 레알 마드리드와의 9라운드에서 승리한 뒤 8경기 연속 무승(5무3패) 부진에 빠졌던 발렌시아는 9경기 만에 승점 3점을 추가했다. 4승7무7패(승점 19)가 된 발렌시아는 17위에서 13위로 도약했다. 이강인은 이날 선발로 출전해 막시 고메스와 투톱을 맡았다. 이강인의 정규리그 선발 출전은 지난해 11월23일 알라베스와의 10라운드 이후 9경기 만이다. 또 지난 8일 예클라노 데포르티비와의 스페인 코파델레이(국왕컵)에 이어 2경기 연속이다. 국왕컵에서 올 시즌 첫 골을 기록했던 이강인은 이날 공격 포인트를 추가하지 못했으나, 날카로운 왼발로 팀 공격을 이끌며 승리에 기여했다. 이강인은 후반 28분까지 뛰다 바에호와 교체됐다. 득점 없이 전반을 마친 발렌시아는 후반 31분 호세 가야의 패스를 받은 카를로스 솔레르의 찬금 같은 결승골로 승기를 잡았다. 발렌시아는 후반 42분 바에호가 상대 골망을 갈랐지만, 비디오판독(VAR) 결과 오프사이드가 선언돼 득점이 인정되지 않았다. 결국 경기는 발렌시아의 1-0 승리로 끝났다. 경기 후 유럽축구통계사이트 후스코어닷컴은 이강인에게 평점 6.3점을 부여했다. 뉴스